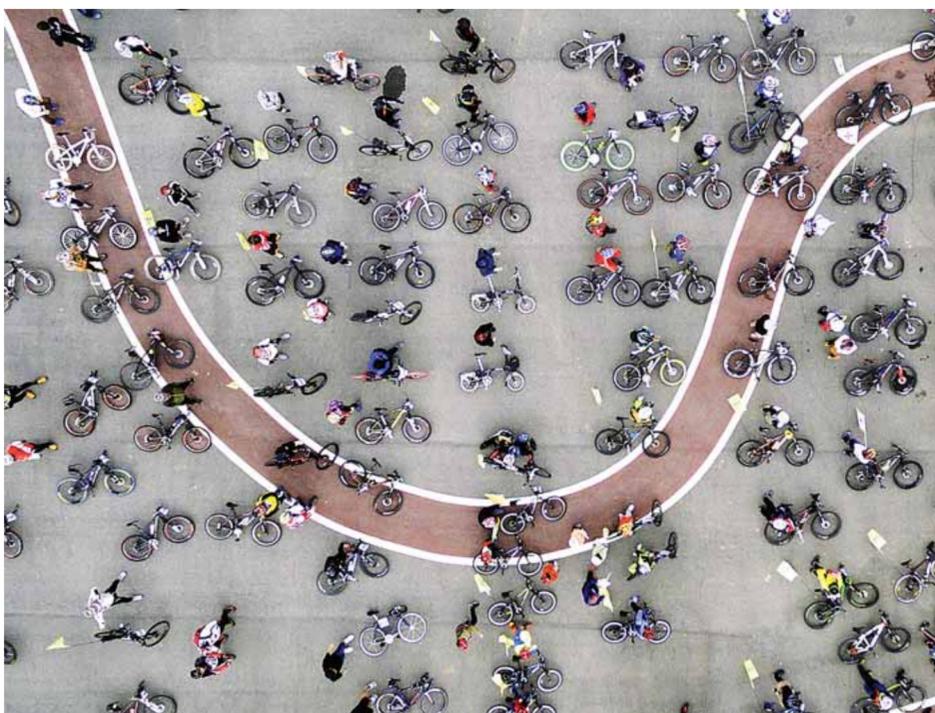


영산강 익새길 누비며 가슴에 담은 '가을 동화'



가을을 가르며... 영산강 익새 물결 사이를 두 바퀴로 달리며 늦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기다. 23일 '2016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Green) 자전거 축제'에 참석한 500여명의 라이더들이 영산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드론으로 내려다 본 두바퀴 세상 드론으로 내려다본 '2016 그린 자전거축제' 현장.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놓아둔 형형 색색의 바퀴와 프레임의 자전거들이 눈길을 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호인·가족·친구 등 500여명
사랑 코스 45km·행복 코스 25km
강바람 맞으며 가을 정취 만끽

노랗고 알록달록한 가을색이 완연한 10월, 영산강변을 두 바퀴로 달리며 가을 낭만을 만끽하는 '2016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Green) 자전거 축제'가 23일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 가족·친구 등 지역민 500여명이 참가해 익새와 코스 모스로 가을 정취가 가득한 영산강변 도로를 달리며 깊어가는 가을을 즐겼다.

화려한 자전거 전용 슈트를 갖춰 입을 500여 참가자들의 움직임과 영산강변의 익새 물결이 어우러지면서 화려한 색깔의 향연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자전거연맹과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주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후원해 ▲사랑코스(45km)와 ▲행복코스(25km)로 나뉘어 비경쟁 페어리로 펼쳐졌다.

사람 코스의 경우 도시민들이 익새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극락교~서창교~승촌보~영산대교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만들어졌다. 행복 코스는 가족·친구들이 함께 달리며 가족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를 출발, 강바람을 맞으며 서창교~승촌보를 천천히 둘러보는 코스로 계획됐다.

'그린 자전거 축제'는 넉넉한 코스로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회 마니아들 사이에 늦가을 빼놓을 수 없는 '라이딩' 행사로 입소문이 난 지 오래다. "영산강을 따라 달리는 코스는 광주·전



23일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2016 그린 자전거축제 대행진' 식전공연 행사에서 춤바댄스팀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의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라이딩 이벤트'로 알려져 있다"는 게 자전거 동호회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주말을 맞아 시원한 강바람을 만끽하며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라이딩'인데다, 마음 맞는 동호회 동료들과 어울리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그린 자전거 축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층이 많은 이유다. 이날도 노란 헬멧, 푸른 고글, 검은 유니폼 등을 갖춰 입고 전용 자전거를 탄 동호인 참가자들이 대부분인 정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 동호회급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 동호인들만의 행사도 아니다. 행사장에는 편한 트레이닝복에 헬멧만 착용하고 나와 남도의 가을 들녘을 따라 가볍게 라이딩을 즐기려는 초보 입문자, 일정을 기억해놓았다가 인근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타고 행사에 참여한 자전거 새내기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대회도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지우기자 dok2000@

태권어린이들의 역주... "하체 힘 키우기 딱이에요"

효나눔박사태권도

'태권어린이들'의 건강환 질주가 영산강 자전거길에 펼쳐졌다.

2016 그린(Green) 자전거 축제가 열린 23일 오전, 능숙하게 자전거를 타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무진 표정으로 출발을 기다리는 초등학생들이 있었다. 헬멧을 단단히 챙겨 쓴 이들은 '효나눔박사태권도'에서 운동을 하는 수련생들이었다.

도장을 벗어나 소풍 나옴 영산강자전거길로 걸음을 한 이들에게 자전거 타기는 또 다른 운동이다.

아이들을 인솔한 김동희 관장(여)이 광주자전거연합회 북구지부장을 맡는 등 자전거와 인연이 깊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자전거 타는 재미와 도전 의식을 알려 주면서 큰 보람을 느낀 김 관장은 아이들이 예게도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김 관장은 "태권도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인데, 태권도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구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 또 태권도에



태권도와 함께 자전거로 심신을 키우고 있는 '효나눔박사태권도' 수련생들이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 발차기가 중요한데 자전거를 타면서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자전거가 익숙한 아이들이 출발선을 떠난 뒤 '자전거 초보'들은 광장에서 김 관장의 특별 과외를 받았다. 그 사이 열심히 달린 참가 학생들은 승촌보 반환점을 돌아 왕복 25km의 질주를 마무리했다.

노인수(산월초 5)군은 "시원하게 달리고 오면 기분이 상쾌하다. 처음에는 힘든

데 달리다 보면 계속 달리고 싶고, 결승선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다. 자전거를 타고 난 뒤 먹는 밥도 맛있었다"며 웃었다.

이연우(산월초 2)군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넘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미있다. 운동도 되고 보람도 느껴지고,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완주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도전 성공적...자타공인 자전거 도사 되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자타공인'

광주일보 덕분에 동료의 정을 더하고 건강까지 챙기게 된 '자타공인'이다.

비장한 표정과 특급 장비로 프로 포스를 내뿜던 '2016 그린(Green) 자전거 축제'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 반 재미 반'의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는 세 남자가 눈에 띄었다.

자전거 초보들의 첫 대회,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성주(29·서기), 송호준(35·서기보), 이동열(29·서기보)씨가 '자타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애 처음 자전거 대회 출발선에 섰다.

'자타공인'은 이제 막 결성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의 따끈따끈한 자전거 동호회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은 광주일보에 실린 자전거 축제 안내문을 보고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급히 동호회를 결성할 이들은 목포해양대 자전거길을 달리며 특별 훈련도 진행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 '자타공인'의 위성주(왼쪽부터)·송호준·이동열 회원이 완주 후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했다. 결성에서 대회 참가까지 채 한 달이 안 걸렸다.

동호회 결성을 주도한 이동열씨는 "과장님의 권유로 모임을 만들게 됐다.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 출퇴근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정도인데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다.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 기분이 특별하다"고 밝혔다.

송호준씨는 "처음 영산강 자전거길을 들어봤는데 풍경이 좋았다. 익새 경지도 좋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달리니 일체감도 느껴지고 좋았다"고 언급했다.

위성주씨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끼리 추억을 만들어서 좋다. 다른 회원 모두 함께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팀 홍보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